

지역 소식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새해 메시지

“사랑하는 북 아시아 지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임스 알 래스벤드 장로
제1보좌

다카시 와다 장로
회장

존 에이 맥쿤 장로
제2보좌

사랑하는 북 아시아 지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라며 이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곳 북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일본과 한국, 미크로네시아, 괌, 몽골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저희 삶의 큰 축복 중 하나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스테이크 대회나 다른 모임에 참석했을 때 많은 분께서 보여 주신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면으로, 또는 지난 한 해는 온라인으로 더 자주 만났지만, 함께 모일 기회가 있을 때면 고향되고 영감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마음이 설렙니다. 이번 가을에, 북 아시아 지역의 각각 다른 곳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기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우리는 지역 회장단으로서 결국 직접 함께 모이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서로 크게 하나가 되는 느낌입니다.

2021년을 전망해 보면, 먼저 역사적인 도쿄 성전의 재현납과 괌 지고 성전의 헌납, 또 일본 오키나와의 새로운 성전 건축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북 아시아 지역 내에 6개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021년에는 우리의 모든 성전이 문을 활짝 열고 가능한 모든 성전 의식과 대리 의식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문을 여는 것이 정말 설레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 성약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압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님께서 10월 연차 대회에서 당부하셨듯이,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 추천”되기 위해, 즉 성전 추천서를 받거나 재발급받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효한 성전 추천서가 있으면 우리의 생활에 평안이 오고 “성신이 풍성하게 [우리들] 인도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래스벤드 장로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작년에 저희와 가족들은 성전에 갈 기회가 없어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 얻는 평안과 관점이 그림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희생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을 알고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후쿠오카 성전, 서울 성전, 도쿄 성전, 삿포로 성전



위 사진: 지난 2019년 5월 4일 건축을 시작한 괌 지고 성전의 3D 조감도.
아래 사진: 오키나와 성전의 3D 조감도

계시므로 ... 그 기적을 가져다주실 것이라"고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러셀 엠 넬슨,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2018년 10월)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가 가족과 함께 갈망하고, 여러분 각 사람이 삶에서 필요한 기적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전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성전 성약의 축복으로, 우리가 구주의 속죄 희생으로 인해 승영에 이르고 또 가족과 함께 영원히 인봉되는 기회입니다. 성전이 다시 열리면, 이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누리시길 권고합니다.

현재 성전 예배는 불가능하지만, "가족 역사 탐구와 색인 작업 등의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라는 넬슨 회장님의 권유를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회장님은 평안을 주는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도 커지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은 주님의 인도와 평안이 우리 각자의 삶에 확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듯,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넬슨 회장님은 성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공부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러셀 엠 넬슨,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2020년 10월) 그렇기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축복으로 이 메시지를 끝맺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대한 지역 회장단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수기 6장 24-26절) ■

오키나와 성전 기공식

20 20년 12월 5일, 평소보다 더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던 날에, 많은 비가 예보되었음에도 이곳에 모인 작은 그룹의 성도들은 오키나와 성전의 아름다운 기공식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행사는 일본의 열대 섬 지역에 사는 용기 있는 다수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 평생을 꿈꿔 온 일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부 지침으로 오직 30명의 인원만이 헌납식에 참석하도록 초대되었고 이 모임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지방부 센터이자 오키나와 와드인 부지 옆 건물의 예배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카시 와다 장로는 헌납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키나와에 있는 성도들에게 번영과 자유와 안전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성전 사업에 참여하며 구주께서 명하신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특히, 와다 장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여러 충실한 성도들의 신앙의 유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부디 이 섬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당신의 영으로 영감받으며 이 사업의 영원한 중요성을 알도록 하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 주변을 지나는 모두가 당신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는 성도들이 "오늘을 우리 삶의 기공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또한 이렇게 간구했다. "부디 당신의 복음에 새롭게 충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성스러운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결심하며 당신의 거룩한 집을 아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후 참석자들은 예배실을 나서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지방부 센터이자 오키나와 와드인 건물 옆에 위치한 0.5에이커 가량의 성전 부지로 향했다. 황금색 삼을 들고 돌씩 짚은 열 명의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하얀 모래의 첫 삼을 뒀다. 여기에는 와다 장로와 나ومی 와다 자매, 요자 회장과 다카코 요자 자매, 후쿠오카 선교부의 스펜서 에프 맥 회장과 제인 맥 자매, 프랜시스 회장과 네티 프랜시스 자매, 지역 칠십인인 유타카 나가모토 장로와 오키나와 성전 기공식 담당자 요시하루 미야기 형제 등이 참여했다. 이후 맥 회장의 요청에 따라 네 명의 전임 선교사들도 흠을 뜨는 행사에 참여했다. 모두가 삼을 든 선교사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일본 오키나와 성전 건축 계획은 2019년 4월 7일에 연차 대회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약 1,000제곱미터에 2층으로 설계된 오키나와 성전은 기존의 집회소 옆 0.5에이커 규모의 주차장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 집회소는 성전 참여자를 위한 공간이 더해져 리모델링될 것이다. 이 성전은 도쿄와 서울, 후쿠오카, 삿포로, 지고 성전을 이은 북 아시아 지역의 여섯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

연말 연시 봉사 프로젝트: 작은 도움의 손길들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연기되고 취소되고 있는 요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은 결코 연기되지 않았다.

대전 스테이크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연탄과 김치를 기부하며 2년 연속으로 ‘이웃 사랑’을 이어갔다. 도심 외 지역에는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여 난방을 해결하는 가정이 많다.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연탄 기부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어서 공주 와드가 충남 다문화 가정 협회를 통해 기부한 연탄이 이웃에게 더더욱 도움이 되었다. 공주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인규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연탄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역 회장단의 권고에 따라 우리 이웃들에게 봉사와 사랑을 나누고, 회원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대전1 와드는 매년 김치를 직접 담그고 전달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서 생산된 김치 35박스를 11월 27일 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했다.

또한 올해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작은 손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온기를 전했다. 서울 서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각 가정에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영등포 와드의 어린이들은 참여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가족과 함께 포장도 하고 꾸러미를 만들면서 재미있었어요. 선물을 주민센터에 갖다주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정은서) 이웃을 돕고 선물을 줄 수 있어서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선물을 포장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재미있었고, 정말 뿌듯했어요.(정은후) ■



영등포 와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만든 선물 꾸러미. (정은서, 정은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선교사: 지금이 다시 봉사할 때

“한국에서 다시 봉사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지금이 다시 봉사할 때라는 강한 영적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커뮤니케이션부(구 홍보부)의 새로운 부부 선교사로 로키 닐슨(Rocky Nilsen) 장로와 그의 아내 아델 닐슨(Adele Nielsen) 자매가 부름받았다.

닐슨 장로 부부의 이름은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서울 성전에서,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에서 닐슨 장로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이들은 2016~2018년에는 서울 성전의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귀국하기 전에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를 위해 열렸던 강릉역 헬핑핸즈센터에서

센터장으로서 봉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헬핑핸즈센터를 방문했던 많은 이들이 닐슨 장로 부부를 기억할 것이다.

닐슨 장로와 한국의 인연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다. 그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던 때는 국내에 하나의 선교부, 즉 ‘한국 선교부’가 존재했던 1973년이다. 그는 1975년까지 전임 선교사로서 인천, 대구, 마산 그리고 서울의 선교 본부에서 봉사했다. 닐슨 장로 부부는 한국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한국의 발전만큼이나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한다.

현재 지역 커뮤니케이션 선교사라는 새로운 부름에서, 닐슨 부부의 역할은

한국 전역의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로키 닐슨 장로와 아델 닐슨 자매. (로키 닐슨, 아델 닐슨)

커뮤니케이션 위원회(구 홍보 위원회)와 함께 일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입국이 제한적인 탓에 현재는 온라인으로 봉사하고 있다. 특히 교회 뉴스룸 기사를 작성하고 관리하여 회원과 비회원이 전 세계의 교회 소식과 한국 지역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낯선 장로는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돌아와 정부 인사,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여론 주도층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낯선 장로

부부는 이렇게 전한다.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성도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충실한 성전 참석, 겸손, 굳건한 신앙,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돌보는 모범은 제 영혼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인들의 언어와 문화, 역사, 소망과 꿈을 배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이 사실이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품은 큰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사진: 한국 선교부에서 봉사할 당시 낯선 장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년 루츠테크 커넥트 행사

20 21년 2월 25~27일 3일간, 패밀리서치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루츠테크 커넥트' 행사를 연다. 올해는 특히 공식 홈페이지 rootstech.or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11년부터 매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되어 온 루츠테크 커넥트는 일종의 가족 역사 박람회 행사로서, 가족 역사를 비롯하여 가족 전통 및 가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강연과 체험 활동이 열린다. 이곳에 참여하는 이들은 가족의 역사와 이야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역사를 보존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

전 세계의 모든 후기 성도 회원들을 위해 2월 25일에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및 여러 총관리 역원과 함께하는 '성전 및 가족 역사 지도자 교육 모임'이 진행되며, 2월 27일에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부부와 '가족 발견의 날' 세션이 진행된다.

또한 이 행사의 특별 강연에서 계보학자, 종교인, 세계적인 운동선수, 유명 음악가 등 다양한 연사들이 가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강연한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수많은 도전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닉 부이치치(Nick Vujicic), 세계적인 여자 골프 선수였던 로레나 오초아(Lorena Ochoa),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저명인사들이 자신의 가족 역사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월 25일부터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수백 개의 강연이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며, 관련 자료도 제공된다. 참석자들은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여

무료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다양한 문화 콘텐츠도 함께 준비되고 있으며, 실시간 강의 중에 라이브 채팅과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연사와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

패밀리서치 인터내셔널(FamilySearch International)의 CEO인 스티브 락우드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질병의 확산은 우리가 더 폭넓은 대중에게 루츠테크를 선보일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가족과 서로 간의 연대를 기념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의 수많은 회원들이 사전 등록을 통해 일정 알림과 관련 소식과 안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rootstech.org 참고) ■



지난 2020년 2월 루츠테크 커넥트 행사 장면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창원 스테이크

진해 와드 감독: 권순길 형제
(전임: 문재근 형제)

순천 지방부

지방부 회장: 송두환 형제
(전임: 김태완 형제)
제1보좌: 조중현 형제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3명



박서현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성현 장로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최형진 장로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서울 선교부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